

# 나주 영산포 '주민 상생·소통 사랑방' 문 열었다

나주 '영산포 상생센터' 준공식  
지상 3층 문화예술·복지 공간  
일자리 창출·주민소통 등 도모  
"도시 활력 거점 공간 될 것"

나주시 영산동을 비롯한 영산포 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소통 사랑방이 될 영산포 상생센터가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영산포 상생센터(센터)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센터 조성은 영산포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교육·복지 공간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시는 센터 신축 부지 매입, 실시계획 등을 거쳐 연면적 491.9㎡에 지상 3층 규모



나주시가 지난 20일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영산포 상생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현장지원센터, 공동작업장, 홍보관 등이 들어섰다. 나주시 제공

로 사업비 29억원을 투입, 지난해 8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했다.

1층은 주민들의 문화복지프로그램,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회의실과 현

장지원센터가 들어섰다. 2층에는 주민 공동체, 죽전골목 상생

상가 창업 등 주민 일자리·소득창출을 목표로 한 교육실, 공동작업장, 주민 컴퓨터 등을 갖췄다.

3층엔 영산포 역사를 담은 홍보관이 등지를 들었다. 홍보관은 마을 활동 기록, 홍보, 동아리방 등 주민 간 소통 사랑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센터 준공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장 및 시의원, 김민주 영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장, 장행준 영산포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영산동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포 상생센터가 영산포 주민들의 교류, 일터, 문화·여가 공간이자 도시 활력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시 기능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남평읍 배수펌프장 배제 용량 증설... 침수피해 대비

나주시 남평읍이 고질적인 여름철 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남평읍 하수도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침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이다. 집중호우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평지역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태풍 메기 등으로 인해 19차례에 걸쳐 총 65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는 등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71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우수관로 4.5km의 통수 능력 개선과 남평배수펌프장의 배제용량 증설이다. 특히 남평배수펌프장의 배제용량은 기존 분당 550톤에서 930톤으로 증설해 집중호우 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물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중점관리 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지난 7월25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 무더위쉼터 40곳을 방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봉황면과 담양군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일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 교차 기부를 했다. 나주시 제공

## 윤병태 시장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 등 운영 만전"

나주시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쉼터인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주시는 관내 전체 경로당 618곳에 한 곳당 냉방비 5만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냉방비 추가 지원은 주야간 가리지 않는 무더운 날씨 속 냉방기기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긴급구호기금 확보를 통해 이뤄졌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전체 경로당에 냉방비 3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냉방기기 총 802대를 점검하고 182대를 선별, 예비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해 수리·교체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에 특히 취약한 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전면 중단하고 실내 참여자 교육으로 대신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7월25일 남평읍 대교 경로당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읍면동 무더위쉼터 40곳을 방문, 점검하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다.

윤 시장은 "어르신들이 재난 수준의 폭염 가운데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담양 2개 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상호 우애

공무원 교육 동기 면장·부면장 인연

나주시와 담양군 소재 2개 면(面)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우애를 다졌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봉황면(면장 김양기)과 담양군(면장 고근석) 소속 직원들이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 교차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교차 기부는 전남도 공무원 교육 동기였던 김양기 봉황면장과 김춘목 고서면 부면장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기부식엔 2개 면 직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 지자체의 특색있는 기부 답례품, 역사·문화·관광 시정을 서로 홍보하고 공

유했다.

김양기 면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동기뿐 아니라 지역 간 직원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돼 뜻깊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양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 업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공식 누리집인 '고향사랑e음' 등을 통해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 우리가족 요리왕 선발대회 참여하세요

10월12일 영산강 정원서

나주시는 2024년 나주영산강축제 기간 중인 10월12일 영산강 정원에서 '우리가족 요리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의 축제로 기존의 전문가나 경력자 위주의 요리경연대회와 달리 누구나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기획됐다.

대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분식 & 디저트'란 주제로 나주의 농특산물과

관광 10선을 활용해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연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번 대회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음식문화팀(061-339-2167)으로 문의하거나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대회 요강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은 10월12일 영산강 정원에서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되며 총 상금은 560만원이다. 대상 1팀에는 1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70만원, 우수상 1팀에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4 나주 영산강축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요리경연대회가 참가자뿐만 아니라 영산강 정원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나주를 다시 찾고 싶은 먹거리 관광지로 만드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